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라부터-회현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남산 힐하우스호텔 옥상-회현동 은행나무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학로-한무숙문학관

13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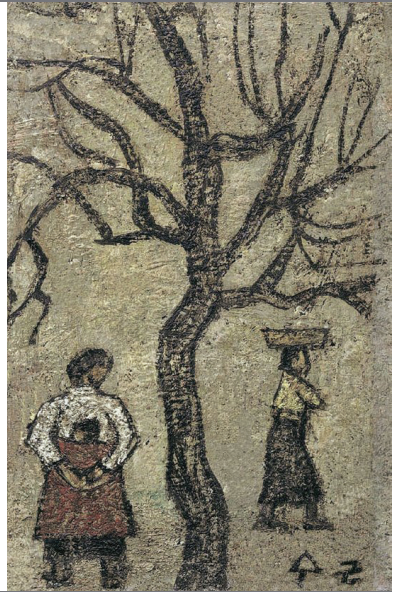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코스 순서

- ① 신세계 백화점
- ② 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
- ③ 유네스코 회관
- ④ 명동예술극장
- ⑤ 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극장, 스퀘라극장)
- ⑥ 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
- ⑦ 체신기념관
- ⑧ 원서공원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족-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족-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점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동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족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우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 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회현제2 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남산 힐하우스호텔 옥상-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화로-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 보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연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1931년(1세)

10월 20일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출생. 아버지 박영노, 어머니 홍기숙.
위로 열 살 위인 맏이 오빠

▶ 1934년(4세)

아버지 별세. 어머니는 오빠를 데리고 서울로 떠남. 조부모와 숙부 밑에서 보냄

▶ 1938년(8세)

어머니를 따라 서울 현저동 산동네로 이주. 매동초등학교 입학

▶ 1944년(14세)

숙명여고 입학

▶ 1945년(15세)

개성으로 이사. 호수돈 여고로 전학. 여름방학 때 박적골에서 해방을 맞이. 다시 서울로 와서 숙명여고로 복학. 5학년 때 박노갑선생님을 담임선생님으로 만남. 소설가 한말숙, 시인 박명성, 김양식과 같은 문과반에서 수학.

▶ 1950년(21세)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 6월 20일 입학식 후 6.25 발발. 학교를 다닌 기간은 며칠 되지 않음. 오빠와 숙부가 죽고 가족 부양을 위해 미8군 PX 초상화부에 취직. 그곳에서 박수근 화백을 만남.

▶ 1953(23세)

4월 21일 직장 동료인 호영진과 결혼. 4녀 1남 출생(1954 원숙, 1955 원순, 1958원경, 1960 원균, 1963 원태)



▶ 1970년(40세)

[나목]으로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 공모에 당선

▶ 1971년(41세)

[세모](여성동아 3월호), [어떤 나들이](월간문학 9월호) 발표.

▶ 1972년(42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현대문학 8월호), [다이아몬드](한국일보) 발표. 7월부터 [한발기]를 『여성동아』에 연재.

▶ 1973년(43세)

[부처님 근처](현대문학 7월호), [지렁이 울음소리](신동아 7월호), [주말농장](문학사상 10월호) 발표

▶ 1974년(44세)

[만사위](서울평론 신년호), [연인들](월간문학3월호), [이별의 김포공항](문학사상 4월호),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세대 5월호), [닭은 방들](월간 중앙 6월호),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신동아 8월호), [재숫군](문학사상 12월호) 발표.

▶ 1975년(45세)

남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옥바라지를 함. [도시의 흥년]을 『문학사상』에 연재. [카메라와 워커](한국문학 2월호), [도둑맞은 가난](세대 4월호), [서글픈 순방](월간조선 6월호), [겨울 나들이](문학사상 9월호), [저렇게 많이!](소설 문예 9월호) 발표. 평론[‘나목’ 근처-그 정직한 여인들](문학사상 9월호) 발표.

▶ 1976년(46세)

첫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출간(일지사). [휘청거리는 오후]를 동아일보에 연재. [어떤 야만](뿌리 깊은 나무 5월호), [포말의 집](한국문학 10월호), [배반의 여름](세계의 문학 가을호), [조그만 체험기](창작과 비평 가을호) 발표.

▶ 1977년(47세)

남편의 옥바라지를 체험을 바탕으로 발표한 [조그만 체험기]에 대한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는데,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 측의 입장만 밝혀서 문제가 됨. 『취청거리』는 오후』 상하권(창작과 비평사), 『창 밖은 봄』(열화당),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평민사), 『혼자 부르는 합창』(진문출판사) 출간. [흑과 부](신동아 2월호), [돌아온 땅](세대 4월호), [상](현대문학 4월호), [꿈을 짚는 사진사](한국문학 6월호), [여인들](세계문학 여름호),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문예중앙 겨울호) 발표.

▶ 1978년(48세)

창작집 『배반의 여름』(창작과 비평사), 『목마른 계절(원제: 한발기)』(수문서관), 수필집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한길사) 출간. [낙토의 아이들](한국문학 1월호),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세계의 문학 봄호), [꿈과 같이](창작과 비평사), [공항에서 만나 사람](문학과 지성 가을호) 발표. 연작 콩트 [화랑에서의 포식](향장), [욕망의 응다라](여성동아) 연재.

▶ 1979년(49세)

『도시의 흥년』 전 2권(문학사상사), 『욕망의 응달』(수문서관), 『달같은 달갈로 갇으렴』 같은 책이 『마지막 임금님』으로 나오기도 함(샘터사) 출간. [내가 놓친 화합](문예중앙 봄호), [황혼](뿌리 깊은 나무 3월호), [우리들의 부자](신동아 8월호), [추적자](문화사상 10월호) 발표.

▶ 1980년(50세)

『살아있는 날의 시작』(전예원) 출간. [육복](소설문학 11월호), [그 가을의 사흘 동안](한국문학 6월호), [엄마의 말뚝1](문학 사상 9월호), [침묵과 실어](세계의 문학 겨울호) 발표. [오만과 몽상](한국문학)에 연재. [그 가을의 사흘 동안]으로 한국문학 작가상 수상.

▶ 1981년(51세)

『도둑맞은 가난』(민음사) 출간. [천변풍경](문예중앙 봄호), [엄마의 말뚝2](문학사상 8월호), [쥬디 할머니](소설문학 10월호) 발표. 평론[기이한 독서경험](문학사상사 3월) 발표. [엄마의 말뚝2]로 제 5회 이상문학상 수상.

▶ 1982년(52세)

단편집 『엄마의 말뚝』(일월서각), 장편 『오만과 몽상』(한국문학사), 수필집 『살아있는 날의 소망』(학원사) 출간. [로열박스](현대문학 1월호), [유실](문학사상 5월호), [무중](세계의 문학 여름호), 평론[소설 이전에 주제가 있었다](현대문학 2월호) 발표.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한국일보)에 연재.

▶ 1983년(53년)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민음사) 출간.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문학사상 3월호), [아저씨의 훈장](현대문학 5월호), [무서운 아이들](한국문학 7월호), [소묘](소설문학 8월호) 발표.

▶ 1984년(54세)

7월 1일 영세 받음. 『지알고 내알고 하늘이 알건만』(창작과 비평사), 풍자소설집 『서울사람들』(글수레) 출간. [울음소리](문학사상 2월호), [저녁의 해후](현대문학 3월호), [어느 이야기꾼의 수렁](문예중앙 여름호), [웁딸](학원 9월호) 발표. [떠도는 결혼](주부생활) 연재.

▶ 1985년(55세)

11월 무렵 일본 ‘국제기금’ 재단의 초청으로 혼자 일본 여행. 『서있는 여자』(학원사, 『떠도는 결혼』과 동일 작품), 작품선집 『그 가을의 사흘 동안』(나남) 출간. [해산바가지](세계의 문학 여름호), [초대](문학사상 10월호), [저물녘의 황혼](문학과 지성) 발표. [미망](문학 사상) 연재.

▶ 1986년(56세)

수필집 『서있는 여자의 갈등』(나남), 창작집 『꽃을 찾아서』(창작사, 1982년에서 1986년 사이의 단편을 수록) 출간. [비애의 장](현대문학 2월호), [꽃을 찾아서](한국문학 8월호) 발표.

▶ 1987년(57세)

[저문날의 삽화1](분노의 메아리 전예원), [저문날의 삽화2](또하나의 문화 4호), [저문날의 삽화3](현대문학 6월호), [저문날의 삽화4](창작과 비평) 발표.

▶ 1988년(58세)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음. 서울을 떠나는 일이 많아짐. 미국여행을 다녀옴. 문학사상에 연재하던 [미망]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씬. [저문날의 삽화5](창작과 비평) 발표.

▶ 1989(59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삼진기획) 출간.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창작과 비평 여름호), [家](현대문학 11월호) 발표.

▶ 1990(60세)

『미망』 전 3권(문학사상), 수필집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햇빛출판사), 『미망』으로 대한민국문학상 우수상 수상.

▶ 1991(61세)

회갑기념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문학과 지성사), 콩트집 『나의 아름다운 이웃』(작가 정신) 출간. [우황청심환](창작과 비평 여름호) 발표. [엄마의 말뚝](작가세계)연재.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정민사) 발표. 장편[미망]으로 제 3회 이산문학상 수상

▶ 1992(62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 출판), 『박완서 문학앨범』, 산문집 『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법』(샘터사) 출간.

▶ 1993년(63세)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사상 창간호), [꿈꾸는 인큐베이터](현대 문학 1월호) 발표 [꿈꾸는 인큐베이터]로 제 38회 현대문학상과 중앙문화 대상(예술 부분) 수상. 『휘청거리는 오후』(세계사), 소설 전집 2,3,4,5권으로 『도시의 흥년』 상·하권, 『살아있는 날의 시작』, 『욕망의 응달』 출간. [엄마의 말뚝]이 [le piquet de mam mere]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로 번역.

▶ 1994(64세)

창작집 『한 말씀만 하소서』(솔), 창작동화 『부송이의 땅힘』(한양출판사), 소설전집

6,7,8,9권으로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장편 『오만과 몽상』,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출간.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으로 제25회 동인문학상 수상.

▶ 1995(65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웅진 출판사), 수필집 『한길 사람 속』(작가 정신) 출간. 소설 전집 10, 11권 『나목』, 『서있는 여자』 출간. [환각의 나]로 제 1회 한무숙 문학상 수상. [환각의 나비](문학 동네 봄호) 발표.

▶ 1996(66세)

소설전집 12,13권 『미망』 상·하권 출간. [참을 수 없는 비밀](창작과 비평 겨울호) 발표.

▶ 1997(67세)

티벳, 네팔 여행기 『모독』(학고재), 동화집 『속삭임』(샘터사) 출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제 5회 대산 문학상 수상.

▶ 1998(68세)

수필집 『어른 노릇 사람 노릇』(작가 정신), 『너무도 쓸쓸한 당신』(창작과 비평) 출간. 문화관광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 1999(69세)

묵상집 『님이어, 그 숲을 떠나지 마오』(여백), 『박완서 단편 소설 전집』(전 5권, 문학동네) 출간. 『너무도 쓸쓸한 당신』으로 제 14회 만해문학상 수상. 영역 단편집 『My Last Profession』(M.E.Sharpe) 출간.

▶ 2000(70세)

수필선집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세계사),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 출간. 박완서문학 30년을 정리한 기념 비평집 『박완서 문학 길찾기』(세계사) 출판. 9월 ‘2000 서울 국제문학포럼’에서 <포스트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발표.

▶ 2001(71세)

[그리움을 위하여](현대문학 2월호) 발표. [그리움을 위하여]로 제 1회 황순원문학상 수상.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의 영문판 [Three Days in That Autumn](유숙희 옮김) 출판.

▶ 2002(72세)

첫 산문집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출간 25주년을 맞아 세계사에서 증보판 출판. 산문집 『두부』(창작과 비평사), 『박완서 문학앨범』 개정 증보판. 『우리 시대의 박완서를 찾아서』(웅진닷컴) 출판. 동화집 『옛날의 사금파리』(열림원) 출판. [그 남자네 집](문학과 사회 여름호), 여성작가 16인 신작소설집 『피스타치오 나무 아래서 잠들다』(동아일보)에 [아치울 이야기] 실림. 문학 에세이[구형예찬](현대문학 8월호) 발표.

▶ 2003(73세)

김남조, 김후란, 박완서, 전옥주, 한말숙 5인 에세이집 『세월의 향기』(솔과학) 출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스페인어로 번역 『Aquella Montana Tan Lejanna』(트로타 출판사) 출판. [마흔 아홉 살](문학동네 봄호), [후남아, 밥먹어라](창작과 비평 여름호) 발표.

▶ 2004(74세)

동화집 『보시니 참 좋았다』(이가서) 출간. 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세계사) 단행본으로 출간.

▶ 2005(75세)

12편의 기행산문을 모아 기행 산문집 『잃어버린 여행가방』(실천문학사) 출간.

▶ 2006(76세)

문학예술인으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 받음. 16회 호암상 예술상 수상.

▶ 2007(77세)

산문집 『호미』(열림원), 이해인, 방혜자, 이인호와 함께 대담집 『대화』(샘터), 『친절한 복희씨』(문학과 지성사) 출간.

▶ 2008(78세)

산문집 『옹고도 아름다운 당신』(열림원) 재출간.

▶ 2009(79세)

10편의 짧은 이야기를 모은 단편 소설집 『세가지 소원』(마음산책) 출간.

▶ 2010(80세)

수필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현대문학), 우리시대 대표문인들이 들려주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산문집 『반성』에 [좋은 일 하기의 어려움]이라는 글을 실음(더 숲), 2009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문인들의 수필집 『사람이 풍경일 때 처럼』에 [내 식의 귀향] (21세기 북스) 출간.

▶ 2011(81세)

1월 22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서 별세.



작가 소개

1931년 경기도 개풍군 박적골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황해도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 개풍군은 경기도였다. 1934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삼년상을 치르자마자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해 열 살 위인 오빠만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 그 때 박완서의 나이 여섯 살이었다. 엄마 없이 보낸 유년기에 슬픔과 고독은 어린 박완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2년 후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왔고, 서울 현저동 골짜기에서 서울살이가 시작됐다. 박완서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내가 도달한 엄마의 서울 살림은 형편없이 궁색한 것이었다. 평지의 반듯반듯한 기와집 동네를 다 그냥 지나치고 꼬불꼬불한 돌계단 길을 한없이 기어 올라가 깎아지른 듯한 축대 끝에 제비집처럼 매달린 초가집의 우중충한 문간방이 엄마의 서울 살림이었다.

- 나 어릴 적에: 박완서 선생님의 옛날이 그리워지는 행복한 이야기중에서

어머니는 딸에게 신여성이 되기를 바랐다. 현저동 꼭대기 문간방 셋집에서 바느질품을 팔며 근근이 살면서도 “넌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 많이 해서 신여성이 되어야 한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란다”라고 하셨다. 박완서의 어머니 홍기숙 여사에게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 이치에 대해 남자들처럼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였다. 훗날 박완서는 그런 어머니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고 하였다.

홍기숙 여사는 산골짜에 시집와 대가족의 며느리로 순종적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의식은 굉장히 도시 지향적이었다. 홍기숙 여사가 결혼 전에 집에서 언문이나 깨치고 이야기책을 베껴 쓰는 걸로 글씨 공부나 하고 있었을 때 외사촌들은 서울에서 진명학교, 숙명학교를 다녔다. 어린 박완서에게 숙명학교, 진명학교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면서 박완서가 신여성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박적골에서는 여자들은 소학교도 안 보내는 시대였고, 남자도 면사무소가 있는 읍내에 4년제 간이학교를 보내면 그나마 낫 집이고 여자는 그 마저도 없었다. 그 시절 홍기숙여사는 아들을 20리나 걸어야 하는 개성에 있는 학교를 보냈고, 서울로 와서는 상업고등학교까지 마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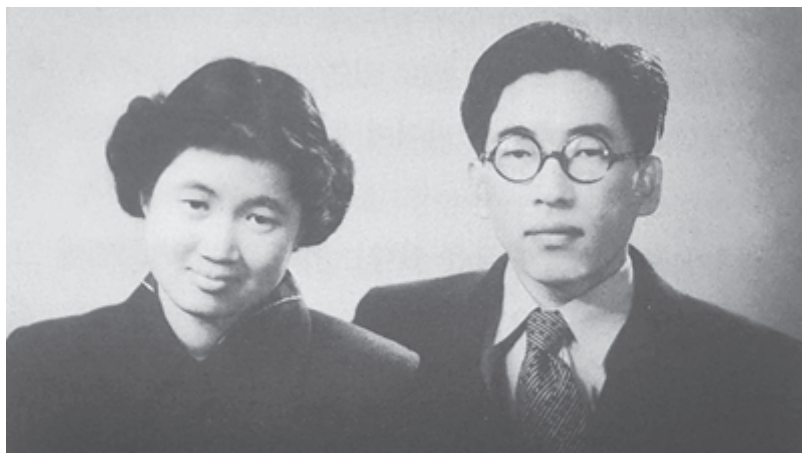
〈어머니 홍기숙(1960)〉

홍기숙 여사는 현저동에 살면서 집 주소를 사직동으로 옮겼다. 딸을 현저동에 있는 안산초등학교가 아닌 매동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현저동은 도시 빈민들이 사는 동네로 어렵게 살다 보니 유난히 썸박질이 잦았다. 그리고 ‘쟁이’자 붙은 사람들이 다 살았다. 미장이, 굴뚝쟁이, 채쟁이, 기와쟁이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술 먹고 와서 애들을 학교에 안보내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 보내는 집도 대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을 정도로 남자들이 여자 패고, 동네 사람들은 싸움 구경하고, 돈 빌리러 이집 저집 다니는 집 사람들 자식과 같이 공부시키기 싫었던 것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열정은 초등학교 시절 박완서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엄한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란 어린 박완서는 거짓 주소를 외워서 말하고, 선생님 가정 방문 있는 날은 주소 옮긴 집을 자기 집인 양 속여야하는 곤역을 치렀다.

매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숙명여고에서 소설가 박노갑 선생을 담임선생님으로 만났다.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나 습작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수업이 큰 힘이 되었다. 1950년 박완서는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에 합격했다. 그러데 특이하게도 1950년은 학제가 개편되어 학기 초가 6월로 바뀐 첫 해였다. 해방 후 수년간 8월을 학년 말로 삼다가 1950년부터 3월을 학년 말, 6월을 학기 초로 시작하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6월 입학한 학번은 50학번이 유일하다. 그 해 서울대는 6월 20일에 입학식을 치렀고 사나흘 강의를 듣고는 6.25가 발발했다.

전쟁 중에 오빠를 잃었다. 박완서는 오빠와 각별한 사이였다. 열 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우애가 좋았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박완서에게 오빠는 오빠인 동시에 아버지였고 우상이었다. “20대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하트가 없고, 30대에도 공산주의자라면 브레인이 없다”는 말이 유행할 당시 오빠는 사회주의에 심취했다가 전향했다. 당시 이데올로기 상황은 이런 오빠에게 무자비했다. 인민군은 반동으로 몰아 폐인으로 만들었고, 국군은 빨갱이로 몰아 총상을 입혀 내팽개쳤다. 고문과 총상은 오빠의 심신을 망가뜨렸고 오빠는 비참하게 죽어갔다.

오빠가 죽은 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8군PX의 초상화부에 근무하다 화가 박수근을 만났다. 그리고 1953년 호영진과 결혼한다.



〈1953년 겨울 어느 날 약혼자 호영진과 함께〉



〈아서원에서의 결혼식, 1953〉



〈이제 막 새댁이 된 스물 두 살 박완서 작가와 시어머니, 1953〉

박완서는 네 딸과 외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40세가 되던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을 걸었다.



《여성동아》에 부록으로 실린 〈나목〉(1970년 11월)

〈나목〉은 박수근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박완서의 처녀작이다. 박수근과의 만남은 박완서를 작가의 길로 걷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분단의 비극을 1980년대에는 소시민적 삶이나 여성의 억압 문제를 1990년대 이후엔 삶을 관조하는 글을 썼다. 2018년을 기준으로 소설·소설집 35권, 산문집 17권, 동화집 11권을 낸 다작 작가이다. [엄마의 말뚝]으로 이상문학상, [꿈꾸는 인큐베이터]로 현대문학상,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으로 동인문학상,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대산문학상, [너무도 쓸쓸한 당신]으로 만해문학상, [그리움을 위하여]로 황순원 문학상을 받았다. 2004년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1월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 작품 해설

〈나목〉은 박수근 화가의 전기로 시작한 작품이다. 박수근 유작전에 가서 그의 그림 값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치솟은 것을 알고 박완서는 화가의 생전의 가난이 억울했다. 박수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언함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의 그림만 갖고 값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증언적 의미에서 그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 『신동아』지에서 일 년에 한번 실시하는 논픽션 공모전을 준비하며 전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전기에 자꾸 꾸민 이야기가 들어가고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갔다. 결국 논픽션을 단념하고 픽션을 쓰기로 했다. 자신 속에 짓눌려있던 이야기를 쓰기로 한 것이다. 사람들은 잘도 잊고 잘도 용서하고 언제 그랬냐 싶게 상처도 감쪽같이 아물리고 잘 만 사는데, 유독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규명해 보려는 집요함이 박완서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어 처녀작 〈나목〉이 펼쳐졌다.

픽션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모집에 응모했고, 당선되었다. 박완서의 문학은 분단문학이라 할 만큼 전쟁이야기 주를 이룬다. 박완서는 자신이 줄기차게 6.25를 주제로 소설을 쓰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겨레의 분단은 이제는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분단은 오래 전에 피 흘리기를 멈추고 굳은 딱지가 된 채 통일을 꿈꾸지 않은 지 오래 됩니다.

통일이란 말은 도처에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산 채 분단된 자의 애절한 꿈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호로서 행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 직업인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구호를 만들어 내어 분단을 치장하면 되겠지만 진실로 통일이 꿈인 사람은 끊임없이 분단된 상처를 쥐어뜯어 괴롭게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물었으되 피 흘리고 있음을, 딱지 앉았으되 굼고 있음을, 잘 차려입었으되 헐벗었음을, 춤추고 있으되 몸부림치고 있음을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도 문학이 숙명처럼 걸머지 형벌이자 자존심이라면 저도 잠시 한탄 비통한 가족사를 폭로한 것 같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늪을 헤치고자 합니다.

- 1981년 제 5회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

〈나목〉이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됐던 것은 박수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PX부분은 체험을 거의 거르지 않고 썼다고 한다. 박완서는 박수근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소설을 썼고, 작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나목〉은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고 어머니와 딸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전쟁 통해 가장이 된 여주인공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옥희도라는 인물을 만남으로 삶의 의욕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다.

실제로 박완서는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이 살아남은 데 대한 어떤 이상한 시선을 느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오빠가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고 어머니와 올케와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것을 여주인공의 정신세계에 투사해서 이야기를 끌고 갔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주인공이 엄마가 “집안이 바로 되려면 네가 죽고 오빠들이 살아남았어야 했는데”하는 소릴 듣고 정신세계가 심하게 일그러져 갈등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려다 다시 본연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소설의 큰 줄기이다.

소설의 마지막은 박수근이 그린 벌거벗은 나목들은 시들여가는 고목이 아니라 모진 추위를 견디며 새봄을 준비하는 겨울 나무였다는 얘기로 끝난다. 전시장에서 박완서 작가를 만난 유홍준 교수가 소설 속 작품이 어느 것이냐고 물으니 ‘나무와 두 여인’(3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박수근의 그림 속 서민들의 모습은 하루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힘겨웠던 50년 전 우리네 삶의 표정인데, 우리는 나목처럼 그것을 견디어 내고 그것을 그린 그림은 어느덧 등록문화재가 되어 있다.

▶ 작가와 서울

서울은 박완서 문학에서 어머니가 딸이 ‘신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이주 시켰던 장소이자, 이후 딸이 평생 식민지배와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던 장소이다. 1930년 후반부터 2000년 대까지 한국 현대사 70년이 서울을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의 핵심 주제로 녹아 있는 셈이다.

박적골을 떠나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 바라본 송도에 대한 느낌은 [엄마의 말뚝]에 잘 나타나있다. ‘대처의 변화가 맹종하고 있는 질서가 나를 주눅들게’하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송도는 아름다웠다. 서울은 더 아름다우리라’라고 기대한다. ‘덮어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질치고’싶은 이질감의 충동을 느꼈다. 도시적 삶의 경계에서의 이끌림과 물러나고 싶음을 동시에 느끼는 의식을 소설의 중심 기제로 정착시킨 장소가 바로 서울의 현저동이다. 이곳은 어머니의 의욕이 현실과 타협한 장소, 박완서가 도시에 마음을 붙이고 정착하는 방법과 도시 안에서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욕망을 가르쳐준 장소이기도 하다. 현저동은 ‘비록 문 밖’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고 정착한 곳이다. 가족은 해방 이후 문안인 신문로에 집을 마련하고, 전쟁 전후에 삼선교와 돈암동 집 등 여러 집을 전전한다. 그러나 현저동만큼 박완서에서 애착으로 남는 공간은 없다. 서울에서 처음 ‘말뚝’을 박은 장소이자, 이 동네에 상것들만 산다고 무시하던 박완서의 엄마도 처음 집을 장만 한 오빠가 대견해서 어쩔 줄 몰랐던 집이며, 오빠 역시 겨우 장만한 이 집의 ‘축대가 무너질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집이었다.

현저동에서 가족이 머물렀던 집은 세 곳이다. 처음은 ‘오랫동안 이영을 잊지 않아 수시로 노래기가 기어 나오는 초가집 문간방’이었고 두 번째는 금융조합의 용자를 받아 처음으로 구입한 집으로 ‘세들어 살던 집에서도 오르막길로 더 올라가 동네가 인왕산 마루턱을 치받으면서 끝나는데 있는 여섯 칸짜리 작지만 어엿한 기와집’이었으며, 세 번째는 총상을 입은 오빠 때문에 전쟁 때 피난갈수 없게 되자 임시로 문을 따고 들어간 집이다(엄마의 말뚝 1에서).



〈현저동 집〉

현저동의 집과 동네는 ‘박적골’과 비교되고 고향을 대체하면서 가족들이 재구성한 서울 안의 새로운 고향이다. 초라하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서울에 마련한 ‘박적골’이다. 스스로 ‘실향민’이라 칭했던 박완서에서 문밖의식은 고향상실과는 구분된다. 문밖은 어머니와 딸이 다른 실향민처럼 전쟁과 분단 때문에 강제적으로 월남해서 정주한 곳이 아니라 신여성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힘들게 정착한 곳이기 때문이다. 즉 문밖의식이란 정주와 이탈의 정서가 동시에 작용하는 의식이다. 새로운 고향에 정주함과 동시에 서울의 중심부에 안착하기 위해 이탈하려는 장소, 이것이 박완서가 가진 서울에 대한 시선의 기원이다.

박완서는 50년과 51년을 서울에서 보낸다. 이때의 전쟁 체험은 문밖의식을 파괴하는 경험이 되었다. 50년대 서울은 자신이 정착한 곳에서 다시 뿌리 뽑히지 않을까하는 공포와 절망의 시공간이었다. 이시기 서울은 도처에 공포가 도사긴 공간으로 묘사된다. ‘변화가인 총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 버리고 윗구멍이 뺨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 문득 무섭을 땀다’[나목중에서]. 이경이 이르는 서울 거리마다 전쟁의 포화를 맞지 않는 곳이 없으며, 공포를 느끼지 않은 곳이 없다.

〈나목〉에는 종로구 계동의 고가가 이경의 집으로 나오지만, 실제 박완서는 돈암동 집에서 전쟁을 맞이하고 현저동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돈암동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글 속에서 돈암동이 아닌 계동으로 허구화 한 것은 전쟁 한가운데 있는 서울을 증언하고 그 시기를 견뎌내야 했던 내적 체험을 증언하기 용이해서일 것이다.

현저동으로 임시 피난을 갔을 때 인민군은 박완서네 가족을 해체하려고 했다. 어머니와 부상당한 오빠와 조카 둘은 남겨 놓고, 박완서와 올케를 북으로 보낸 것이다. 다행히 파주 교하를 거쳐 되돌아와서 박완서와 올케는 돈암동 집에서 가족들과 재회를 했다.

한국 전쟁 전까지 가족은 돈암동에서 세 번 이사를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 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성북경찰서 주변 신안탕 뒷골목의 돈암동 집이다. 여러 작품에서 묘사되었듯이 안채가 넓고 딸이 독방 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번듯했던 작은 숙부네 집에 대한 서술은 1940-50년대 서울의 중산층 지역에 대한 문학적 재현이다. 실제로 일제 치하 경성부의 대표적 토막촌이었던 돈암동은 1936년 영등포 지구와 함께 일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택지로 선정되면서 빈민촌에서 신시가지로 거듭난 곳이다. 특히 1939년 돈암동은 창경궁 노선이 연장된 전차 노선의 종점이 되면서 관청 회사 은행 학교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신흥주거단지가 되었다. 돈암동집은 박완서에게 가족과 함께 서울에 박은 행복한 말뚝이자 또 하나의 현저동이었다.

▶ 작품 줄거리



〈나무와 두 여인, 박수근, 1956〉

〈나목〉의 시간적 배경은 6.25직후의 폐허같은 현실이고, 장소는 계동과 명동일대다. 스무 살의 여주인공 이경은 미군 PX에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 파는 조그만 가게의 점원이다. 이경의 복잡한 내적 갈등은 소설에서 극단의 대비를 이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이경의 일터공간이다. 영어를 곧잘 구사하고 이기적이면서 번덕스러운 이경은 초상화 가게를 찾는 미군병사에게 아양을 떨고, 초상화부의 환쟁들을 깔보며, 미군 애인의 편지 번역을 부탁하며 매달리는 양공주 다이아나 김을 멸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황태수를 우습게 여기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최만길 사장을 경멸하며 인물들 위에 군림한다. 그런데 이경의 모습을 생존의 차원에서 존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옥희도다. 또 다른 공간은 이경이 사는 계동의 고가다. 이경의 가정은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상태이다.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전쟁이 나기 직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가정 파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난 두 오빠와 살아남은 어머니다. 두 오빠는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집 안 행랑채에 숨어 있다가 폭격으로 죽음을 맞는다. 두 오빠를 행랑채에 숨도록 제안한 이경은 오빠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며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작품 초반엔 공포의 근원을 모른 채 고가의 무너진 지붕을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죽음과 함께 산 송장이되어 두 아들이 죽어가던 순간을 살고 있다. 두 아들의 흔적을 지키는 것에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어머니의 의식은 이미 폭격 순간에 고정되어버렸다. 정지된 시간만이 존재하는 계동 고가는 전쟁이 끝난 뒤의 현실과는 아무 관계없이 황량하기만 하다. 이경은 이 두 공간, 즉 생존 앞에 비굴한 공간과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공간을 끊임없이 왕복하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이경은 고가에서 지내는 것의 두려움에 늘 떨면서도 폐허가 된 고가에 머물고자 고집한다. 큰아버지의 도움도 사촌오빠의 호의도 거절한다. 미군 병사들에게 초상화를 팔고, 퇴근길에 가끔 명동을 돌아다니고, 명동 성당의 성모마리아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흐느끼고, 집에 와서는 가부장적 사고의 강박 속에서 삶을 놓아버린 어머니를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어찌지 못한다.

일터에서는 다른 인격은 안중에도 없는 PX걸로 집에서는 죽고 싶고 살고 싶고를 반복하며 어머니를 원망하는 딸로 일그러진 경아의 삶은 옥희도를 만나 균열이 일어난다. 옥희도의 눈빛에서 피폐한 고가의 느낌을 발견하면서 부터다. 화가지만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기에 미군병사의 초상화를 그려 파는 환쟁이로 살아가기 위해 붓을 꺾은 옥희도도 경아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두 사람은 폐허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며, 삶의 참다운 가치를 찾고자 한다. 각자의 자아를 찾고자 한 것이다. 멈춰버린 파괴의 시간을 붙잡고 자신을 위장하는 경아와 일상의 요구에 밀려 화가이기를 포기했던 옥희도는 결국 동일한

존재였고 동일한 존재만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황태수와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이경의 자아찾기는 이어진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황태수와 파티장에서 남녀에 대한 생각차이를 느끼자, '나는 서툰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할 까닭이 없는 거였다'라는 다짐을 한다. 그가 바래다주는 귀갓길에서도 '이제부터 혼자여야 한다'라고 하며 의존하려는 자신을 바로 세운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굴레를 벗고자 선택한 미국 병사 조와의 하룻밤 만남에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자신을 절벽으로 떨어뜨림이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떠올리는 충격으로 작용한 것이다.

옥희도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었기에 끌렸다. 옥희도의 진심어린 말은 이경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한 성의가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 침팬지 인형이 있는 가게 앞에서 누군가의 태업으로 움직이는 침팬지 인형을 통해 '침팬지의 고독'을 보며 각자 짊어져야 할 고독의 무게를 덜어내기도 했다.

옥희도에게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당당이 고아가되라는, 혼자가 되라는 조언을 듣고 이별 후 태수를 남편으로 맞아들인다. 옥희도의 유작전을 찾아가 이전에 옥희도를 사랑하고 끌렸던 시절에 보았던 그의 그림 속 나무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란다. 그림 속 나목은 옥희도 자신이었으며 그가 불우하고 암울한 시절을 '나목'처럼 살아냈음을 깨닫는다.

▶ 관련 자료

주인공 이경의 전쟁 체험

〈나목〉은 전쟁으로 파괴된 가정의 딸이 가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립되어가는 이야기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머니의 차가운 냉대와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로 완성되지 못하고, 인간주체로서의 정립도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난다.

이미 낙엽을 끝낸 분수간의 어린 나무들이 벌거숭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치를 비빈다.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채 바람이 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378쪽).

책의 마지막 문장이다. 떨고 있는 어린 나무는 이경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불행 속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애쓴 이경의 체험이 주는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 절망과 희망이다. 가부장제 사회가 강요하는(어머니로 대변되는) 여자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한 절망과 남자의 전유물이었던 가족 부양에 나서서 가부장제의 틈새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주체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희망이다. 이경은 절망과 희망을 오가며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

이경은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라는 어머니의 ‘원성과도 같은, 주문과도 같은’ 한마디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폭격으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딸을 포함한 살아있는 것 모두를 거부한다.

고가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가장이 되어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영악해진 나.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고수(어머니)와 그에 대한 거부 또는 환멸(딸)간의 긴장이라고 볼 수 있다.

행랑채에 숨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이경은 마치 오빠들의 죽음이 자기 탓인 양 죄책감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죄책감과 딸의 존재를 무시하는 어머니는 이경을 어두운 회색공간에 가두어버린다.

어머니는 대를 이을 아들을 잃음으로서 모든 의미를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유폐시켜 버리는 가부장적인 어머니이다. 딸을 사랑하고 자애로웠던 어머니가 철저히 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이경은 행복의 이면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가부장적 가치와 정면으로 대립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 드넓은 고가에 단 둘만이 살면서 우리는 애정이라든가 의무로 묶여있지 않았다”이 장면에서 모녀관계가 가치의 대립에 의해 파탄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생계부양자로서 주인공 이경이 경험하는 바깥세상도 부정적인 공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군PX의 점원 노릇을 하면서 그녀가 경험하는 세상은 속물성과 파렴치함으로 얼룩져 있다. 이곳에서 스무 살의 이경은 점점 영악해지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고가가 주는 중압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즐긴다. 이경이 숨막히는 가부장적인 억압의 집으로부터 탈출해서 경험하는 바깥세상은 고가의 중압감과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회색빛 암울함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제공한다.

언제보아도 싫이 않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화사하고 매력적인 상품들, 그 풍요한 상품들을 후광처럼 등지고 서서 저녁 화장에 여념이 없는 세일즈 걸들. 나는 이런것들 바라보기를 즐겼다(17쪽)

가부장제의 틈새를 제공한(가정 부양자의 역할을 해 낼수 있게 한) 곳이지만 바깥세상 역시 또 다른 부정적인 공간이었다. 이경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될 걸. 전쟁은 누구에게나 재난을 골고루 나누어주고서야 끝나리라. 절대로 나만을, 혁이나 욕이 오빠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거의 광적이고 양갈진 이런 열망과 또 문득 덮쳐오는 전쟁에 대한 유별난 공포. 나는 늘 이런 모순에 자신을 찢기고 시달려, 균형을 잃고 피곤했다.(49쪽)

‘고가의 망령’에 들려있다는 표현처럼 그녀의 집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은 전쟁의 광폭한 힘에 휩싸여있고, 오빠들을 죽게했다는 트라우마 속에 있다. 가족 부양으로 나선 것에 대한 낯섬과 자랑스러움은 혼란스러웠고, 고가에서 남녀의 권력관계에 종속되어 살아있

는 생명을 부정할 정도로 완강한 힘인 어머니의 단호함에 절망하면서도 이를 객관화시킬 힘이 없었다.

둘째, 사회적 규범이 무너진 자리(물리적으로-파괴된 장소, 시대적으로-근대화로 인한 서양문물의 유입)에서 여성의 성이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재규정한다. 전쟁은 여성이 목숨처럼 여기던 순결이 생존을 위해서 무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 다이애나 김), 사랑 없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미군병사 조),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순수해지기도 한다(황태수). 이경은 여기에서 '다채로운 욕망'을 느낀다. 옥희도씨에게 느낀 첫사랑, 미군 병사 조에게 느낀 성적 일탈에의 욕망, 황태수의 순수한 사랑에서 다양한 욕망을 느낀다. 한 연구자는 옥희도와의 사랑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환상, 전쟁의 중압감으로 부터의 도피와 삶에의 욕구, 어머니에 대한 적의나 복수 감정 등의 복합된 충동이라고 분석했다. 자기 파괴 욕망과 강렬한 삶에의 욕망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다(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 비평] (1977, 가을), p216).

조에게 느낀 성욕은 (그는 미동도 안하고 연기를 깊이 탐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 섹스에의 강한 동경을 느꼈다. 나는 그 다음날, 문득문득 조를 기다렸다(243쪽)) 죽음의 경계에서 규범과 제도의 무력함을 체험한 여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경의 성적 욕망은 자기 파괴적이면서도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부남과의 사랑이나 미국병사에게 느끼는 성욕은 현실 원칙을 거부하는 쾌락 원칙의 추구하고 있다. 규범화된 현실의 사랑이나 성, 즉 현실원칙을 부정하고 본능적인 쾌락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금기에 대한 도전이며 삶에의 욕망이면서 자기 파괴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경의 일탈은 저항과 파괴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가부장적인 어머니에 대한 혐오와 가부장적인 성규범의 무너짐, 성과 사랑에서의 자기 욕망을 통해 이경은 여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간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사건이 되고, 이경은 다시 방황한다.

가부장제의 강력한 상징이던 어머니가 죽고, 이경은 황태수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시간이 흘러 옥희도의 집에서 본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나뭇잎이었음을 깨닫는 이경은 자신이 아직 조 한 겨울에 마냥 떨고 있는 어린 나뭇잎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가가 헐리고 새로 지은 보금자리는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 하나 불안하긴 여전하고, 한 가정의 딸로서 여성으로서 자아 찾기는 결혼으로 돌연 중단되고 자신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순탄하게 결혼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런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이경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뭘까?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 이경의 자아찾기는 과연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경이 자신의 삶의 성찰을 완결지었다면, 내적 불안보다는 가부장제에 대해 저항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

침묵된 불안의 정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어머니의 죽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경은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가 비를 맞고 폐렴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엉뚱한 이야기는 사실처럼 가장되고,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어머니는 어젯밤의 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나도 어머니의 지난 밤에 무관심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미 나에게 무관심이 어떤 형태의 증오심보다도 가혹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었고 나도 어머니를 그런 무관심한 등거인으로 대하리라 마음먹었다(331쪽)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이란 말예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온 날 어머니는 밤새, 저 골목 밖에서 떨면서 저를 기다리셨대요. 노인네가 그 추운 밤에 그래서 그만 급성 폐렴이돼서 그만, 그만...”(347쪽)

어머니의 죽음은 이경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경의 증언으로 은폐된다.

어쩌자고 나는 또다시 하나의 죽음의 핑계가 되려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었다. 또다시 그럴 수는 없었다(348쪽)

나의 외침으로 어머니의 죽음, 오빠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행랑채에 숨으라고 했던 자신이 오빠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진술은 거짓인가?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 비를 맞고 폐렴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진술도 거짓인가? 결국 작품에서 죽음의 의미는 진실이 되지 못한 채, 다시 침묵된다. 그래서 자기정체성 찾기 작업은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전쟁 중 오빠들의 죽음은 이경의 다채로운 욕망과 자아 찾기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가부장제의 수호신인 어머니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인물로 이경을 철저히 타자화하는(실존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무가치하게 만드는) 존재로 이경의 자아 찾기를 좌절시킨다. 결국 이경은 오빠들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어머니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끝난 것이다. 게다가 이경자신도 여전히 가부장제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고 있다.

* 글 속에 등장하는 책의 본문은 2018년 세계사에서 출판한 <나목>에서 인용

박완서가 말하는 초상화 그리던 시절의 박수근



박완서
(1931~2011)



박수근
(1914~1965)

박수근 화백을 알게 된 것은 1951년이 저물어가는 겨울이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오빠 친구의 소개로 미군PX 초상화부 점원이 되었다. 화가를 뒷바라지 하면서 미군으로부터 초상화 주문을 맡는 일을 했다. 그는 남보다 몸집이 크지만 무진 착해 보여서 소 같은 인상이었다. 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자칫하면 어리석어 보이기 십상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닥은 결코 착하고 점잖은 사람을 알아볼 만한 고장이 아니었다. 나부터도 그랬다. 내가 말문이 열리고 또 뻘뻘스러워지기도 해서 돼먹지 않은 영어로 미군에게 수작을 걸 수 있게 되고, 차츰 그림주문도 늘어날 무렵부터 화가들에게 안하무인으로 굴기 시작했다. 내 덕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한껏 무시하고 구박하게 했다. 그들은 거의 사십대로 나에겐 아버지뻘은 되는 어른인데도 나는 그들을 김 씨, 이씨 하고, 마치 부리는 아랫사람 대하듯이 마구 불러댔다. 김 선생님, 이 선생님이 라고 부르기 싫었으면 김 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라고 해도 좋으련만 꼬박꼬박 김씨, 이씨였다. 그(박수근)도 물론 박씨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양갓집 딸로, 또 서울대 학생인 내가 미군들에게 갖은 아양을 다 떨고, 간판쟁이들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급의 예술가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희들의 일거리를 대주고 있는데, 그만한 생색쯤 못 낼게 뭔가 싶었다. 나는 그때 내가 더 이상 전략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전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불행감에 정신없이 열중하고 있었다.

초상화부는 그림주문 반품 받는 것을 ‘빠꾸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함부로 빠꾸 받는다는 걸 알고 내 비위를 맞추려고 비굴하게 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럴수록 나는 그들을 깔보고 한껏 신경질은 부렸다. 나는 하찮은 그들을 위해 나의 그 대단한 자존심을 팔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색을 내도 모자라는 느낌이 었다. 그 무렵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싹수머리 없이 못되게 굴었나를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어느 날 그가 그의 화집을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출근을 했다. 나는 속으로 ‘꼴깁하고 있네, 옆구리에 화집 낀다고 간판쟁이가 화가가 될 줄 아남?’ 하고 비웃었다. 순전히 품으로만 화집을 끼고 나온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가 화집을 펴 들고 나에게로 왔다. 얼굴에 띤 망설이는 듯 수줍은 미소가 어찌나 인상적이었던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가 있다. 마치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초등학교 학생처럼 천진무구한 얼굴이었다. 그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작품이라고 했다. 촌부가 절구질하는 그림이었다.



〈일하는 여인〉, 박수근, 1936
제 15회 조선 미술전람회 입선

선전에 입선한 그림이라고 했다. 당시 나는 일제시대의 관전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 같진 않다. 그러나 간판쟁이 중에 진짜 화가가 섞여 있었다는 건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그동안 그다지도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문득 깨어나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의 수모를 말없이 감내하던 그의 선량함이 비로소 의연함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잘난 척이라곤 모르고 간판쟁이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간판쟁이로 일관했다. 그가 신분을 밝힌 것은 내가 죽자꾸나 하고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헤어나게 하려는 그다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 불행에만 몰입했던 눈을 들어 남의 불행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부터 PX생활이 한결 견디기가 쉬워졌다. 그에 대한 연민이 그 불우한 시대를 함께 어렵게 사는 간판쟁이들, 동료 점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균열을 일으킨 내 심정을 축여오는 듯했다. 비로소 내가 막되어가는 모습을 그가 얼마나 연민에 찬 시선으로 지켜보아주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 후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거의 매일같이 퇴근을 했는데 한 번도 저녁을 같이 먹거나 그의 집을 따라가 본 적은 없다. 을지로입구 전차 정류장까지 같이 걸다가 도중에서 명동으로 빠지는게 고작이었다. 그와 나는 <나목>에서도 나오지만 명동 노점상에서 장난감 구경하기를 즐겼다. 그때만 해도 태업을 틀어주면 한참 동안 저절로 움직이는 장난감은 PX를 통해 흘러나온 외제뿐이어서 행인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구경을 했었다. 길에서 군밤이나 호공(땅콩)을 사서 한껏 느리게 까먹으면서 전차 정류장까지 걸기도 했고 다방에 들리기도 했다.

그는 워낙 말수가 적어서 말은 주로 나 혼자 말아서 했는데 그의 가족에 대해 묻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그의 부인은 어떤 여자일까 하는 정도의 궁금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사시장철 변함없는 빛바랜 작업복과 간판쟁이들과 어울려서라도 생활비를 벌어야한다는 처지로 미루어 나는 그의 아내를 무식하고 거칠고 온종일 바가지나 굵고 아이들을 울릴 능력밖에 없는 끔찍한 여자로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모델로 한 소설 <나목>에선 그의 아내를 빼어난 이조백자에 비유할 만큼 미화시키고 있다. <나목>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몇 년 뒤 그의 유작전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부인을 보았다. 부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판판으로 미모와 교양과 품위를 겸비한 분이었다. 나는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인사도 못 하고 먼발치로 바라만 보다가 나오고 말았다. 놀랐을

뿐 아니라 배신감 비슷한 쓰디쓴 감정까지 솟구쳤다. 그가 나에게 한 번도 그의 부인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으니 나는 순전히 나의 상상력에 배신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의 부인의 미모와 부덕을 진작 알았던들 〈나목〉에서 절대로 그분을 그렇게 미화시키지는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내 멋대로 상상한 추녀 악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소설 속에서나마 그녀를 미화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와 나의 일 년 남짓한 사귄데 조금이라도 불순한 게 섞였다면 아마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 이 기회에 털어놓는다.

그 일 년 동안에는 봄도 가을도 여름도 있었으련만 왠지 그가 걸었던 길가엔 겨울 풍경만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즐겨 그린 나목 때문일까. 그가 그린 나목을 볼 때마다 그해 겨울, 내 눈엔 마냥 살벌하게만 보이던 겨울나무가 그의 눈엔 어찌 그리 늠름하고도 숨 쉬듯이 정겹게 비쳐졌을까 가슴이 저리게 신기해지곤 한다. - 박완서의 회고록 중에서

▶ 기타 코스

신세계백화점 본점(일제시대 미쓰코시 백화점, 1950년 미군PX)



〈1950년 미군PX〉

Mitsukoshi Department Store, Keijo.
店 貨 百 越 三 (명명城京)



〈일제시대의 미쓰코시 백화점〉

국가 기록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을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전신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이 처음 한국에 진출한 건 1906년으로 처음 문을 연 곳은 충무로였다. 1934년에 현재 자리로 이전했다. 45년 해방을 맞아 미쓰코시도 철수했다. 백화점은 당시 한국인 종업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상호는 동화 백화점으로 변경되었다. 당시엔 국산품보다 외제 밀수품을 주로 취급했다. 6.25 전쟁이 나면서 이곳은 미8군의 PX가 들어왔다. 54년엔 민간인 강영원씨가 인수 동화백화점으로 재개관한 후 9년만인 63년에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서 명칭을 신세계로 변경했다. 이곳은 개점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미쓰코시 백화점의 개점일인 1930년 10월 24일을 창립일로 삼고 매년 이시기에 창립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군 PX는 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청이 들어오면서 충무로를 비롯해 서울 내에 이미 수개소가 있었다. 피엑스는 미군인만을 상대로 하는 매점이다. 48년 신문에는 조선산 기념품이 PX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기도했다. 그때 인기가 있었던 물건은 칠기, 녹기, 부채, 장신구, 가족제품 등이었다. PX에서 인기 있는 공예품은 외화 벌이에도 효자노릇을 했다고 한다.

아시아미디어타워(옛 수도극장, 스카라극장)



〈1946~62년 수도극장〉



〈1962~2005년 스카라극장〉

처음 현 자리에 1935년 일본인에 의해 약초극장이 들어섰다. 당시에는 영화상영뿐 아니라 공연도 선보였다고 한다. 당시 약초극장은 1172석을 보유한 대형극장이었다. 해방 후 극장 지배인이던 홍찬이 극장을 인수, 수도 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했다. [나목] 속에서 이경은 수도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하고, 황태수와 함께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1954년 12월 14일 수도극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키스 신이 나오는 영화 〈운명의 손〉(한형모 감독)이 개봉되었다. 이 영화에서 카바레 마담으로 나오는 윤인자와 장교역의 이항의 키스 장면은 약 2초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로서는 영화 속에서의 키스일지라도 그야말로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심지어 유부녀인 윤인자의 남편은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한형모 감독을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6.25 전쟁 이후 미국식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 혹은 애정 관과 서구문물이 상충 갈등하고 충돌하는 시기임을 알게 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상영되는 등 성업을 하던 수도극장은 이후 경영악화로 1962년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해 9월13일에 스카라 극장으로 재개관한다. 90년대 초까지 대형 상영관이라는 현대식 시설

로 서울 10대 영화관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영 악화를 겪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영화관들은 대형 상영관을 복합 상영관으로 만들어 시대의 변화를 따랐는데, 스카라는 단관을 고수하며 국내 최대 스크린(16M*9M)을 고집했다.

변화의 바람에 맞서 전통을 고수하는 ‘스카라’의 고집은 영화인들에게 ‘대중예술의 금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으나, 변화의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 2005년 11월 문화재청은 초기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스카라극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등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건물주는 70년을 지내온 건물을 철거해버렸다. 문화재 등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현재 건물인 아시아미디어타워가 건축되었다.

참고자료

-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25, 179-202, 2008.
- 김미영, 박완서 소설의 치유 공간 연구, 한국어문학회, 한국어문학 91, 175-202, 2014.
-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의 의미,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54, 11-41, 2018.
- 김태훈, 박완서의 『나목』,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박물관교육연구, 21, 55-57, 2019.
- 김복순, 『박수근 아내의 일기』, 현실문화, 2015.
-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8.
- 박완서, 『나 어릴적에-박완서 선생님의 옛날이 그리워지는 행복한 이야기』, 처음주니어, 2009.
- 박완서, 『박완서-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박완서, 『박완서의 말』, 마음산책, 2018.
- 박완서, 권영민, 호원숙, 『박완서 문학 앨범-행복한 예술가의 초상』, 웅진출판, 1992.
-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25, 111-138, 2011.
- 이선옥, 모성 다시쓰기의 의미 ‘박완서론’,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4, 247-266, 2000.
- 최지선, 성장 소설로서의 〈나목〉연구,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어문학보, 29, 121-138, 2008.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박정아



약력

-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졸업, 교육학 석사
- 송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 졸업, 교육학박사

2003년부터 지금까지 <책마루독서교육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독서와 교육, 문화와 공동체, 인문학과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시립 도서관과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 독서교육과 경기도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독서 토론 교육을 했습니다. 한림성심대 평생 학습 예비대학의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에서 강의하면서 학습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을 만들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의 추동력이 된다는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사회와 성인학습에 관심이 있고, 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개별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미래유산 해설사로 활동하며 송실대에서 발달심리학을,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성인학습과 상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초등학생 독서 논술-고학년>2007, <초등학생 독서 논술-저학년>2007, <다중 지능-아이의 미래를 바꾼다>2008, <독서지도 백과>2010가 있고, 논문으로는 <독서과정 코칭수업 모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의 공공도서관 성인독서교육을 통한 자기도야 경험탐구>, <성인독서실천공동체 <책마루> 구성원의 학습경험 탐구>가 있습니다.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기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